

SILKROAD



Special Theme 해외건설 반세기

Issue

제4회 태안 모범 청소년 돕기 동행 콘서트
국가생산성대회 산업포장

스타와 함께

런던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

건축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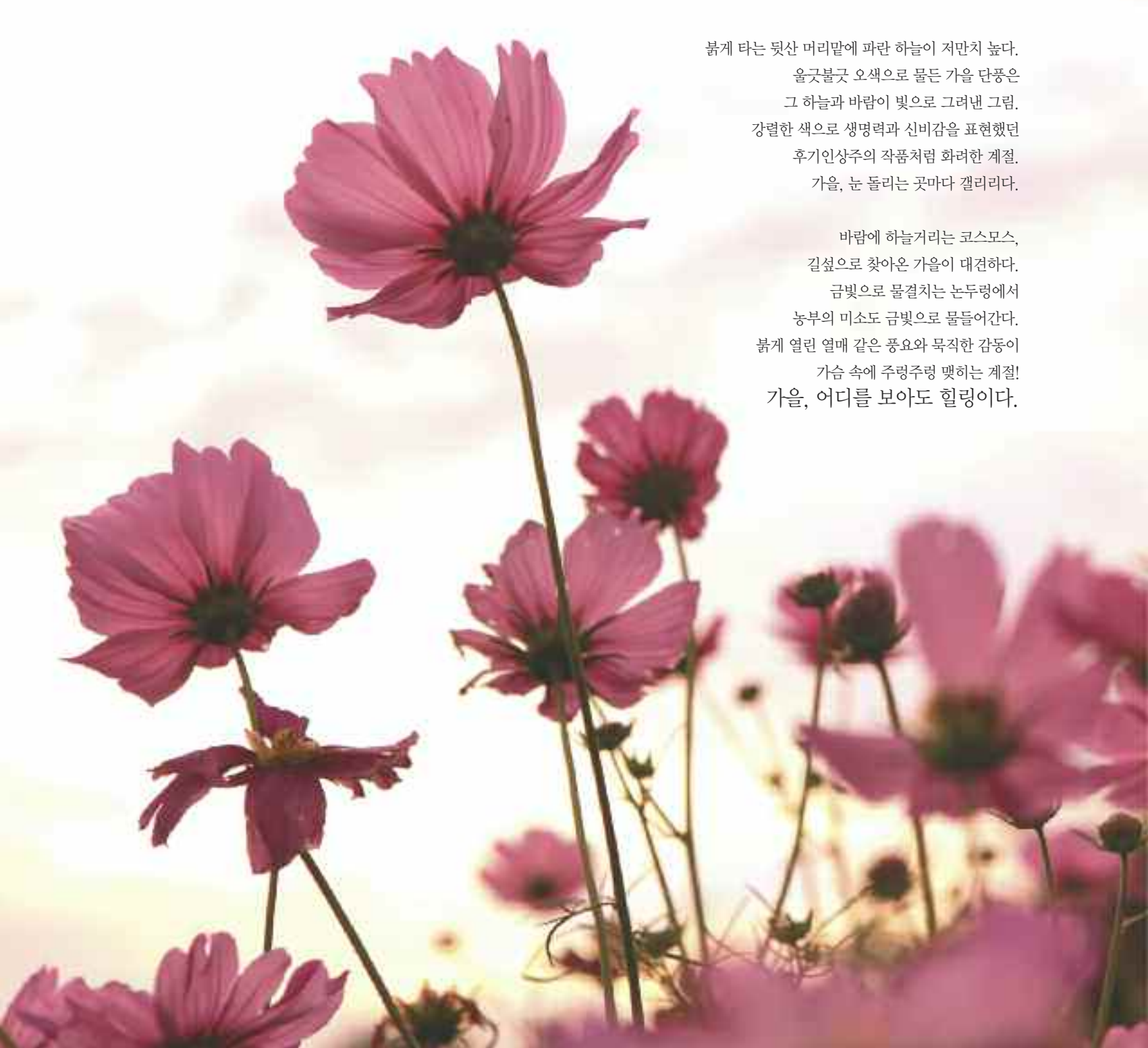
돌로 빛은 잉카의 기억, 쿠스코와 마추픽추

2012 vol.20 Autumn

가을, 어디를 보아도 힐링이다

붉게 타는 뒷산 머리맡에 파란 하늘이 저만치 높다.
울긋불긋 오색으로 물든 가을 단풍은
그 하늘과 바람이 빛으로 그려낸 그림.
강렬한 색으로 생명력과 신비감을 표현했던
후기인상주의 작품처럼 화려한 계절.
가을, 눈 돌리는 곳마다 깔리리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길옆으로 찾아온 가을이 대견하다.
금빛으로 물결치는 논두렁에서
농부의 미소도 금빛으로 물들어간다.
붉게 열린 열매 같은 풍요와 목직한 감동이
가슴 속에 주렁주렁 맺히는 계절!
가을, 어디를 보아도 힐링이다.



Contents

2012년 가을호 통권 20호 <실크로드> 비매품
발행인 겸 편집인 박민환 발행일자 2012년 9월 30일
발행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빌딩 9층 (우 137-863)
(주)실크로드시앤티 02-2057-0114
기획·디자인 및 제작대행 비컴 02-543-6133 사진 noon pictures 02-562-1017

02 **생각의 창**

Special Theme

- 04 **Intro**
해외건설, 새로운 비상을 꿈꾸다
- 06 **Review**
해외건설 반세기
- 08 **Interview**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 10 **Report**
해외건설 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 12 **Focus**
2012 브라질 콘크리트 혼화제 기술 세미나
- 14 **Issue 1**
제4회 태안 모범 청소년 돕기 동행 콘서트
- 15 **Issue 2**
국가생산성대회 산업포장
- 16 **Partner**
동진산업주식회사
- 18 **People**
영업본부 TD팀 이지만 차장
- 20 **Now in Silkroad 1**
태안가족 한마음 축제
- 22 **Now in Silkroad 2**
실크로드시앤티 공채4기 입문교육
- 24 **문화와 예술**
우리 시대 영원한 광대 사물놀이패 김덕수 단장
- 26 **스타와 함께**
런던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
- 28 **Book Review**
《행복한 책 읽기》, 《책은 도끼다》
- 30 **한국 건축 이야기**
한국 건축미의 절정, 지붕과 처마
- 32 **건축기행**
돌로 빛은 잉카의 기억, 쿠스코와 마추픽추
- 36 **Money**
마이너스 통장과 저성장 시대 대출 재테크
- 38 **Leisure**
Shall we dance? 건강과 재미를 한 번에! 댄스 스포츠
- 40 **Health**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정복하기
- 42 **SILKROAD News**

10
18
26
32
40



표지 이야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부르즈 칼리파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층 건물이다. 총 160층, 전체 높이 828m로, 2004년 착공하여 2009년 완공되었다.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참여하여, 3일에 1층씩 올리는 첨단 공법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건물이다.



해외건설, 새로운 비상을 꿈꾸다

1965년 태국 파타니~나라티와트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그 동안 수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점차 성장해 왔다. 2010년 기준 한국 건설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8%로 세계 7위 수준.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로 꼽히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우리 건설업체가 해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칼리파도 우리 건설업체의 작품이다.

해외건설 47주년을 맞은 올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건설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세계다. 실제로 최근 국내의 많은 건설업체들이 굵직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주하며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대로 나가면, 2020년에 해외건설 경제효과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미래 경제효과 창출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해외건설 산업의 발자취와 현황,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해외건설 반세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한 지 반세기가 되어간다. 국내 여러 대학에서 배출한 고급 인력들이 건설업계로 진출하여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국제적인 건설 공사에 대한 기본지식을 학습한 것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헌신한 현대건설 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삼환기업 故 최종환 명예회장의 노력으로 해외건설은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47년 동안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수행한 많은 프로젝트 가운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만을 간추려 소개해본다.

글 전낙근(공학박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CM/CIC 연구실)



1965년, 현대건설

태국 파타니~나라티와트 간 고속도로 공사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공사 제1호(미화 500만 달러 규모).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환경인 열대우림지역에서 매우 힘들게 진행되었으나, 많은 후속 공사 수주를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교본이 되었던 공사다.



1973년, 삼환기업

사우디아라비아 카이바~알 올라 간 고속도로 공사

극히 건조한 열사의 환경에서 고난을 겪은 공사였지만, 최종환 회장이 맨손으로 이루어낸 중동 진출 제1호 공사로 의미가 깊다. 이들이 축적한 외화로 우리나라 국가 경제력이 크게 성장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로 포틀랜드 시멘트 5개 종류 전체를 사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토건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1976년, 현대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

미화 9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이 공사는 당시까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건설 공사 금액 총계를 뛰어넘는 프로젝트였다. 공사 계약 후 선수금으로 수령한 7억 리얄(미화 2억 달러)이 외환은행에 입금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외지불능력을 대폭 신장시키기도 했다.



1975년, 신원개발(現 삼성물산)

이란 코람샤르 항만 공사

공기 준수를 위해 주야로 작업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당시 이란의 국왕(레자 팔레비)이 크게 감탄하여 많은 건설 공사를 한국 업체와 계약 하라는 어명을 내리는 계기가 됐다.



1979년, 대우건설

수단의 포트수단 타이어공장 공사

우리나라가 수출한 최초의 플랜트이며 수단 최초의 중화학공업 공장이다. 치열한 경쟁 대신, 물자차관을 앞선하여 금융이익과 무경쟁으로 건설 공사 이익을 최대화하는 시장 창출형 계약방식을 취했던 프로젝트이다.



1981년, 삼부토건

타이프 킹 파하드 스포츠센터 건설 공사

건설 공사 품질에 크게 만족한 발주자가 준공 검사를 면제하고 하자보수기간을 크게 단축해 준 일화로 유명하다.



1981년, 대우건설

리비아 벵가지 7천 세대 아파트 공사

당시까지 수주한 주택 공사 중 최대 규모인데, 도면이나 시방서 한 장 없이 계약하고도 완벽하게 완공해내 주목을 받았다.



1996년, 대우건설

말레이시아 텔레컴타워 건축 공사

1997년에 동남아와 한국을 강타한 외환 파동으로 국내의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압박을 자력으로 해결하며 완공해낸 공사다.



2004년, 삼성물산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건축 공사

160층, 높이가 800m에 달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2010년 2월에 개관하여 사용 중이다. 앞으로 당분간 이 빌딩보다 높은 건축물은 나타나지 않을 듯하다. **SILKROAD**



1983년, 동아건설

리비아 대수로 공사

단일 공사 중 세계 최대 공사(미화 34억 달러 규모)로서 사막을 기름진 농토로 바꾸는 역사적인 역할을 했다.



1982년, 현대건설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공사

현대건설이 세계적인 41개의 건설업체와 경쟁하여 수주하고 최단기간에 완공한 교량 공사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교량 건설 공사였다.



해외건설,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초창기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은 개별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개척 의지와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6년 해외건설협회가 설립된 이래, 해외건설 산업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힘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 해외건설이 5,000억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내기까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온 해외건설협회 최재덕 회장으로부터 해외건설의 최근 이슈와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본다.

글 김기용

올해 해외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최재덕 회장은 글로벌 재정위기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외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해외건설 시장에 대해 우려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한다.

“그 동안 해외건설 산업은 높은 외화 가치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이보다 더 클 것입니다.”

최재덕 회장은 인프라 발주 수요가 꾸준한 중동지역이 완충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주고 있어 급속한 건설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해외건설 전망 밝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은 황금으로 일컬어지는 석유자원으로 중동국가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GCC 지역의 대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만 보더라도 2011년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입의 급증은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쓰이든, 자국민의 민생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투입되든 자연스럽게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상 이처럼 오일머니가 증가하면서 중동의 유력 발주처들은 대형 프로젝트 발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동 각국이 올해부터 자국민 복지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는 분위기라서 우리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는 한층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의 중동 붐, 성패는 수주다변화와 공종다각화

제2의 중동 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동의 해외건설 시장이 긍정적이라 해도, 중동지역과 플랜트 공사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수주 구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최재덕 회장은 최근의 수주 호조가 중동에서의 수주 확대에 크게 힘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역 편중이 심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기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과 공종 편중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에는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했다.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시장과 공종을 다변화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확실한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단순 토목·건축 위주의 공사를 수주했지만, 지금은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요. 건축, 토목, 용역 등 공종다각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업계에서도 현재 중동에 집중된 수주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포스트 중동을 대비한 시장다변화의 중요성을 절감한 건설사들이 아프리카, 중남미, CIS 지역 시장을 뚫기 위해 활발하게 수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처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을 연계한 패키지 방식의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최근 해외건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국내건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건설 시장은 그 규모가 매년 4~5%씩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얼마든지 수주 확대가 가능한 시장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는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중견 건설업체와 주택업체들도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하고, 그 규모나 전문 인력, 재정능력 등이 열악하다는 점은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협회는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 중소·중견 건설업체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타당성 분석부터 계약, 시공 및 공정관리 등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덕 회장은 앞으로도 국내 업종별 단체와의 업무공조를 강화하면서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건설인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다함으로써 해외건설 부흥기를 함께 써 내려가자는 당부의 말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SILKROAD**

해외건설 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앞으로 해외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건설 시장이 매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지난해 2.7% 성장에 이어 올해는 6.2%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7조 3,000억 달러였던 시장규모도 8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건설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건설 시장 트렌드는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글 김유경



중동을 넘어

이제는 아프리카, 중남미로

2010년 유엔 안보리가 대 이란 제재를 결의한 뒤, 국제 정세 불안에 따라 중동 건설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국내의 한 건설사도 이란 가스탈황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지만, 제재 이후 국내 은행과 이란 금융기관 간의 거래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여전히 오일 달러를 앞세운 중동 지역에서의 발주 물량은 풍부하지만, 중동지역에 편중된 수주는 전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신흥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이 유력한 대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프리카의 가나 정부는 최근 Tema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부잔교 건설, 항만 운영 설비의 구매 등을 포함하는 Tema항 개선 사업을 발표했다. 가봉 정부 역시 발전소 증설 계획을 밝혔으며, 에티오피아 도로청은 향후 9만 7,000여km에 이르는 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태양열 발전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페루와 멕시코 역시 계속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안하여, 태양열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러한 경향에 적극 동참하여, 코트디부아르 발전소 증설 공사 및 이집트 정유플랜트 프로젝트,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등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단순 도급보다는 투자개발형 민자사업이 대세

과거 해외건설 시장의 주요 사업은 발주처가 공사비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 담당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 재정이 충분치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노후된 기반시설을 재정비

하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설사가 직접 공사비용을 조달하거나 투자하는 개발형 민자사업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발형 민자사업은 발전 분야의 사례를 볼 때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과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민자발전(Independent Power Plant, IPP)과 공항, 항만 등 공공 분야에 민간 건설사가 일부 투자하는 민관공동개발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 그리고 건설비용 일부를 개발해낸 자원으로 대신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자원연계 패키지사업(Exploration & Production, E&P)으로 나뉜다.

그동안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물량은 대부분 일괄 도급방식인 EPC가 대부분이었다. 선진국의 건설사들이 우수한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황으로 중국이나 인도, 터키 등의 후발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선점하면서 해외건설 수주 환경이 점차 악화되었다. 게다가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 발주만을 기다리는 EPC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반면 IPP나 PPP의 경우,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총 사업비를 낮추고, 추후 효율적인 운영으로 많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앞으로 발주 예정인 중동의 발전 플랜트 중 약 30% 가량이 IPP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전력청에서는 사피 석탄화력발전소를 민자발전방식인 IPP로 발주했으며, 나이지리아 전력부 역시 민자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건설사들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세계 최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인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Qurrayah) 민간발전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으며, 라오스의 대표적인 민간 수력발전사업인 '세피안-세남노이 프로젝트'도 수주해냈다.

하지만 외국 건설업체에 비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IPP, PPP 등 해외 투자 개발형 민자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및 보증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제 시공능력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이 중요한 심사 항목이 되었기 때문.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맞춰,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SILKROAD

월드챔프 프로젝트, 2012 브라질 콘크리트 혼화제 기술 세미나

글 권태숙

월드챔프 프로젝트

KOTRA의 핵심사업인 월드챔프 프로젝트는 해외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경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며, 2012년 실크로드시엔티를 포함한 30개 업체가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The World Champ Project sponsored by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is to help enterprises which have great potential to grow up as global companies if they are intensively supported on global marketing. 30 companies including SILKROAD C&T were selected as beneficiaries in 2012.

실크로드시엔티와 KOTRA가 월드챔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 주최한 콘크리트 혼화제 기술 세미나가 8월 30일~31일 이틀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 Concrete Show 2012 박람회장에서 개최되었다.

브라질의 주요 혼화제업체, 레미콘업체, 프리캐스트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실크로드시엔티 차철용 사장이 회사 소개와 함께 PCE제품의 우수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가 개최된 Concrete Show 2012 박람회는 브라질 및 남미 지역에서 가장 규모 있는 건설 관련 박람회로, 남미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건설 관계자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다.

실크로드시엔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브라질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orld Champ Project, 2012 Concrete Admixture Technology Seminar in Brazil

Concrete Admixture Technology Seminar jointly sponsored by SILKROAD C&T and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was held for 2 days from August 30 to 31 at Concrete Show 2012 Expo in Sao Paulo, Brazil.

Over 100 people from major concrete admixture companies, ready-mix companies and precast companies in Brazil participated in this seminar. Chul-Yong Cha, the president of SILKROAD C&T, presented overall introduction of SILKROAD C&T and excellent qualities of PCE products.

Concrete Show Expo 2012, at which this seminar was held, is the largest concrete Expo in Brazil and South America. Not only construction companies in South America but also those in Europe and Asia participate in this Expo.

SILKROAD C&T expects that its entrance to Brazilian market will be accelerated through this seminar. [SILKROAD](#)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제4회 태안 모범 청소년 돕기 동행 콘서트

글 정여원(경영지원팀)

메세나정신을 실천해온 첨단 건설소재 리더 기업, 실크로드시엔티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2013년 2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4회 동행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4회를 맞이하는 동행 콘서트는 실크로드시엔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걸 그룹 '2NE1'과 함께 콘서트를 개최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베트남 현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보다 신선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 성악가와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K-POP 스타를 함께 초청할 예정이다. 클래식과 대중가요의 색다른 조합을 통해 그 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클래식 음악의 묘미와 흥겨운 대중음악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그 동안 개최된 동행 콘서트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소통의 자리이자,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의 기회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제4회 동행 콘서트를 통해 마련되는 수익금 역시 태안 모범 청소년들에게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희망의 멜로디로 시작된 작은 사랑이 세상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더 큰 관심으로 퍼져나가 어려운 이들에게 힘찬 응원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SILKROAD**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동행 콘서트,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실크로드시엔티의 따뜻한 음악 이야기, 제4회 동행 콘서트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보 독자엽서란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성악가와 한류 스타를 적어주세요.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드립니다.



실크로드시엔티 박민환 회장 '국가생산성대회 산업포장'

글 성상욱(건설경제) / 사진 Noon Pictures



실크로드시엔티 박민환 회장이 글로벌 품질경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6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생산성대회는 매년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1962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제정한 '생산

성상'을 1987년 정부포상으로 전환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단체 대표, 수상기업의 임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포상이 확대되고 생산성 혁신활동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경영진과 근로자 등이 다수 선정됐다.

국내 1위 콘크리트 혼화제업체인 실크로드시엔티는 3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으로 국내 동종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40여 개 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세계적 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민환 회장은 수상소감에서 "글로벌 첨단 건설소재 기업을 목표로, 인재육성을 통해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경영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생산성 강화를 실천해왔다."며 "앞으로 세계 건설소재 시장을 리드하는 진정한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SILKROAD**

변화를 통해 도약을 꿈꾸는 기업

동진산업주식회사

미래의 문은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고 환하게 열려 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한 발 앞서 업역을 확장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미래는 담보되지 않는다. 이처럼 변화에 대한 요구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레미콘업체들. 그런 면에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동진산업주식회사 PC사업부는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글 권태숙 / 사진 Noon Pictures



1, 2. 지난해 11월 PC시장에 진출해 우수한 실적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호평받고 있는 동진산업주식회사 직원들과 공장.



2

1961년 설립된 동진산업주식회사는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하는 전통 있는 기업이다. 창립 당시의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과 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기라서 전신주의 수요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신주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 출발한 동진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명수)는 이후 업역을 확장해 레미콘업체로 성장해 나갔다. 이는 주택 건설 붐과 시장의 변화를 눈여겨본 경영자의 혜안이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동진산업주식회사의 사업 분야는 레미콘사업부와 파일사업부, PC사업부 등 세 분야로 다각화되어 있다. 서울에 있는 본사를 중심으로, 경기 수원에 레미콘사업부, 충남 서산에 파일사업부, 충북 음성에 PC사업부가 위치하고 있다. 서울 경기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업부는 분야별로 전문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최근 특히 주목을 받는 곳이 2011년 11월 출범한 PC사업부이다.



3. 타설 중인 콘크리트 제품관리를 하고 있는 고옥환 주임.

레미콘사업의 경쟁력을 PC사업으로 연결하다

PC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의 약자로, 완전 정미된 공장에서 제조된 콘크리트 제품을 말한다. 건설업체들이 각각의 현장에 맞추어 완성된 제품을 주문하는 일종의 주문제작 방식의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통 공장에서 기둥이나 보, 바닥판 등의 부재를 철제 거푸집으로 만들어서 양생시키고 철저한 품질관리 하에 납품하게 된다.

지난 50년 간의 노하우로 콘크리트의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감을 갖고 있던 동진산업주식회사는 이러한 PC의 수요와 가능성을 보고 지난해 11월 PC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제 갓 첫들도 되지 않은 동진산업주식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PC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아파트 건설현장은 물론 토목현장, 산업시설, 야구장등 문화시설까지 PC제품을 납품하면서 예감 좋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연간 6만루베를 생산할 수 있는 저희 회사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좋은 작업환경과 첨단 시설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어요. PC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급 기술진들이 이곳에 계신 것이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시설 증축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C사업부의 출범과 함께 레미콘사업부에서 PC사업부로 발령을 받은 고옥환 주임은 동진산업주식회사의 PC사업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고 말한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인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는 페이스 메이커

“PC사업부로 발령을 받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 실크로드시엔티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힘이 되었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도 알려주고, 배합시험을 비롯한 품질시험을 할 때도 연구소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PC사업부에서는 100% 실크로드시엔티 제품만 사용하게 되었어요.”

고옥환 주임의 겸손한 말에 실크로드시엔티 영업본부 김승환 대리는 오히려 손사래를 친다. “레미콘과 달리 PC의 품질관리는 2배 이상 까다롭다고 할 수 있어요. 혼화제는 물론 탈형제 등 첨가제가 다양하고, 철근 등 부자재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변수가 많고 시험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에 신속하게 적응해 좋은 성과를 일궈나가는 것을 보며 동진산업주식회사의 품질관리 역량이 놀라곤 합니다.”



4. 품질관리실 고옥환 주임과 실크로드시엔티 영업본부 김승환 대리가 완성된 PC제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PC는 공정이 빨라 공기단축에 효과가 크며, 정확한 품질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한때 주춤했던 PC시장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원하는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 동진산업주식회사의 PC시장 진출은 이런 점에 주목한 결과였다. 레미콘과 마찬가지로 PC사업도 현장과 수요가 많아야 하는데, 예전에 비해 PC업계 환경이 많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건설시장에서 PC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품질관리에 더욱 힘쓰고 협력업체들과의 유대관계도 견고히 해나가겠다는 동진산업주식회사.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그들의 초반 스피드가 결승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SILKROAD**

영업본부 TD팀 이지만 차장

마음과 마음을 단단하게 잇는 ‘급결제’ 같은 사람

길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다듬어지기 마련이다. 도시와 시골,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도로를 개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는 산을 깎고 교량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다. 그 중 도로를 잇는 데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 할 수 있는 터널 공사 현장엔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우수한 기술공법의 집약체라 할 수 있다. 터널 공사 현장의 특급 도우미, 급결제 영업을 맡고 있는 TD팀 이지만 차장을 만나본다.

글 이용규 / 사진 Noon Pictures



터널 공사 현장에서의 콘크리트는 안정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보재 중의 하나.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조기에 발현되어 터널 벽면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급결제를 첨가하여 분사하게 되는데 실크로드시엔티의 급결제 제품은 국내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전국 토목 현장에 실크로드시엔티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TD팀의 단단한 팀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지만 차장은 힘주어 말한다.

13년 경력의 베테랑 영업맨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굳어지려면 반나절 이상 혹은 하루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터널 공사 현장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단단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에 콘크리트를 5~10분 내에 빨리 굳게 하는 급결제 제품 사용이 필수입니다. 물론 경쟁사들의 제품들도 있지만 급결제는 실크로드시엔티의 제품이 최고 품질이라는 것을 현장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실무자들이 더 잘 알기에 실무자를 집중공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업 전략이라고 밝히는 이지만 차장.

그가 실크로드시엔티에 입사한 지는 햇수로 6년 쯤이다. 이전 동종업계에 몸담고 있었던 경력까지 합하면 13년 동안 급결제 영업에만 몰두해 온 베테랑이다. 한 계통에 오래 머물다보니 그만의 ‘비기(秘技)’가 있을 법도 한데, 현란한 영업기술보다는 그저 솔직담백하게 마음과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노하우라면 노하우라 말하고 웃는다.

“국내 급결제 영업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터널 현장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아요. 그러니 무엇보다 내실을 기해 고객을 진정 내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지만 차장은 고객을 대할 때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객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업이라 믿는 까닭이다.

페어플레이를 중시하는 승부사

다부진 체구에 단단한 근육이 누가 봐도 운동 꽤나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지만 차장. 역시나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건전한 몸과 마음은 영업맨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심어주었다.



“학창 시절에는 제가 그리 활발한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영업을 하고 보니 대외

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 만나는 일이 좋더군요. 예상 외로 적응을 너무 잘해서 ‘아, 영업이 내 길인가 보다.’ 싶었죠. 지금도 운동을 그만두고 이 길로 들어선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기왕 영업맨으로 칼을 뽑았으면 두부를 썰기보다 나무는 베야하지 않겠느냐며 웃는 이지만 차장은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고객들에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입사하기 전까지 실크로드시엔티는 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산에 입성하고 보니 왜 부동의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윗분들은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이끌어주셨고, 또 아래 직원들도 믿고 잘 따라와 주어서 우리 TD팀이 꾸준히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팀장과 팀원들이 푹푹 뭉쳐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TD팀 이기에 서로의 가정에 손가락 개수까지 훤히 알 정도라고 한다. 입사하면서 줄곧 TD팀에만 몸담고 있는 이지만 차장이기에 TD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팀에 거는 기대도 크다고.

“그 동안 우리 TD팀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성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급결제 시장이 상대적으로 좁고 한계가 있어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모색 중인 만큼, 조만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SILKROAD**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했던 여름날의 추억 태안가족 한마음 축제

글 정여원(경영지원팀)

일년에 한번 만나게 되는 반가운 얼굴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특히 더 보고 싶고 또 기다려진다. 지난 6월 9일 태안공장에서는 실크로드시엔티 가족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제5회 태안가족 한마음 축제'가 열렸다. 모두가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특히 하나 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던 축제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본다.

동심으로 돌아간 실크로드시엔티 가족들

누구나 한번쯤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것이다. 소풍 가는 날,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을 보며 날씨를 확인하던 기억, 김밥과 간식이 든 가방을 메고 들뜬 마음으로 학교를 향하던 기억... 지난 6월 9일 태안공장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 실크로드시엔티 가족들의 얼굴에서도 그런 설렘과 즐거움이 묻어났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동심으로 돌아간 이들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고 경쾌하게 느껴졌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태안가족 한마음 축제는 실크로드시엔티 직원들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회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다 함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태안공장 직원 및 가족을 비롯해 본사, 평택공장 직원을 포함한 총 60여 명이 참석하여 한마음 축제 현장을 더욱 빛내주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웃고 즐기는 가운데 서로 몰랐던 가족들끼리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나임을 느끼게 해 준 공감과 소통의 현장

행사는 맛있는 점심식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날 오랜만에 만나는 직원들은 식사를 함께 하는 동안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바빴다. 비록 일터는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같은 실크로드시엔티 가족이기에, 서로 친목을 다지고 단합할 수 있는 한마음 축제가 더욱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점심식사 후부터 본격적인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준비되었다. 가을 운동회의 단골 아이템인 과자 따먹기와 함께 물 풍선 던지기, 바람개비 불기, 림보 등으로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한 가족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마음에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상품이 걸리고 나니 슬슬 승부욕이 발동하는 모양인지 금세 적극적인 자세로 게임을 즐겼다. 자녀와 함께한 직원들은 온가족이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신없이 게임에 몰입하다보니 경기에 출전한 '선수'도, 또 목청껏 응원하는 '친구'도 어느새 한 마음, 하나가 되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가능하게 했던 태안가족 한마음 축제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었다. **SILKROAD**



게임에 몰입하다보니
경기에 출전한 '선수'도,
또 목청껏 응원하는 '친구'도
어느새 한 마음,
하나가 되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들

실크로드시엔티 공채4기 입문교육

적극적인 의지로 주어진 일을 정확히 해내는 성실한 인재,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자기계발에 힘쓰는 인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가꿀 줄 아는 건강한 인재... 바로 실크로드시엔티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다. 기업의 미래는 인재에게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재교육에 힘을 기울여 온 실크로드시엔티가 2012년 공채4기 입문교육을 실시했다.

글 권태숙 / 사진 Noon Pictures

지난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경기도 화성 청호인재개발원에서 실크로드시엔티 공채4기 입문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공채 4기 입문교육은 직장 내 인간관계 스킬, DISC 분석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팀워크 강화훈련, 윤리경영의 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 조직생활의 적응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한 강의로 구성되었으며 비전 투어와 캔미팅 등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그 중 특히 DISC 분석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과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재무인생 설계 등의 수업은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 사이에서 유익한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어느 해보다 팀워크가 좋았다고 평가 받은 공채4기 입문교육 현장을 찾아 실크로드시엔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들을 만나보았다.



공채4기 미니 인터뷰

주어진 모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나은진 사원 _ 경영기획본부 재경팀

입사 후 처음 받게 된 공채4기 입문교육. 기대 반, 부담 반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고,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해야 하는 입장이라 재무관리와 자산설계 교육이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을 통해 장·단기 플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교육에서 좋았던 것은 마음이 맞는 연수 동기를 만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의지해나갈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것이 연수원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합니다.



성장과 발전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김상욱 과장 _ 경영기획본부 기획팀/변호사

대학시절부터 국제무역과 통상에 관심이 있었고, 졸업 후에는 외교부 산하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후 일단은 현장에서 송무를 수행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법무를 익히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실크로드시엔티에 사내 변호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실크로드시엔티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고,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회사의 발전과정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업무에 한해서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동료애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권종구 주임연구원 _ 기술연구소 연구2팀

몇 년 간 항만설계 분야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 번 앞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실크로드시엔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사명이 의미하듯 우리 회사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전공을 살려 콘크리트 혼화제 분야에서 일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유능한 연구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작은 꿈들이 모이면 커다란 목표의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크로드시엔티가 세계 일류 기업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회사의 비전과 팀원들의 동료애를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업무에서도 긍정적 상호작용을 기대합니다

엄진수 사원 _ 평택공장 생산팀

건축물의 초고층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 혼화제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실크로드시엔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 받게 된 이번 교육은 긍정적 상호작용인 부메랑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먼저 인사하고 손을 내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한 발자국 다가가는 용기를 낸 덕분에 그 무엇보다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동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크로드시엔티가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자기계발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혼화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ILKROAD**



우리 시대 영원한 광대 사물놀이패 김덕수 단장

올해로 광대 데뷔 55주년, 55년 동안의 사물놀이패 김덕수 단장의 이야기다. 그 길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남사당패의 전통이 되며 차츰 변화되어 판소리를 비롯하여 네댓살 먹은 어린 꼬마가 소고(小鼓)를 가지고 신명나게 노는 모습만 보고 아버지는 일찌감치 그 끼와 재능을 감지하였다.

김덕수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서울 종로문화체육센터 광화문아트홀, 그 곳에서 올해로 4년 째 전통연희상설공연 '판'이 공연되고 있다. 무속 판소리 사물놀이인 연희를 주축으로 하는 이 전통공연은 남사당놀이를 현대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그 신명나는 한판 놀이의 중심에 사물놀이 한울림의 김덕수 단장이 있다.

“올해로 광대 데뷔 55년이 되는 해이자, 사물놀이가 탄생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물놀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150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공연예술의 진수를 전수해 온 김덕수 단장이기에 한류의 열풍을 몰고 온 진정한 원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물놀이라는 전통음악 장르를 자리매김하게 한 장본인, 김덕수 단장. 그가 사물놀이 한울림을 창시하게 된 이유는 그만이 가지는 시대의식과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유한 생활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어요. 어린 나이에 광대로 데뷔한 이래 전통공연에서 팽과리, 징, 북, 장고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던 거죠. 전통공연예술을 하는 선배로서 현장에서 배우고 가꾼 것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던 거지요.”

김덕수 단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공연의 신명은 리듬에

있다. 신명나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교육하는 것이 사물놀이패를 창단한 목적이자 지금까지 무대를 지켜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실크로드시앤티는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하고 매년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im Duk-Soo, a leader of Samulnori Hanulim, is a key person of this exhilarating performance.

“This year is the 55th anniversary of my debut as a clown and the 35th anniversary of SamulNori birth. I hope that Samulnori is loved by more people in the future.”

Kim Duk-Soo is a real pioneer of HanRyu because he has propagated the quint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by playing more than 150 times all over the world. Kim-Duk Soo is the person who made Samulnori on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genres. The reason that he established SamulNori Hanulim is his spirit of the age and responsibility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s our nation’s economy has grown, our unique life style has been changed a lot. I have realized the value of Kwaenggwari, Jing, Buk, and Janggu since I debut as a clown in my early days. As a senior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 I had a strong sense of duty to propagate what I learned and achieved on site.”

What he considers the most important is the rhythm in performing arts. To compose new exhilarating repertoires and educate performers is the purpose of establishing his samulnori-pae and the reason why he has kept staying in the stage.

As I know, Silkroad C&T supports Culture & Arts organizations and holds a charity concert every year. I hope that Silkroad C&T continue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our Culture and Arts. **SILKROAD**

Duk-Soo Kim , a leader of Samulnori-pae

Samulnori 'Pan' has being played for 4 years at Kwanghwamoon Art Hall of Jongno Culture & Sports Center located at Sajik-dong, Jongno-gu, Seoul. This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based on Yeonhee of Pansori Samulnori is a modern version of Namsadangnori.



금메달보다 더 진한 감동을 안겨준 스물일곱 청년

런던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

지난 8월 1일 새벽, 런던으로부터 기분 좋은 승전보가 날아들었다. 런던올림픽 대회 3일째를 맞아, 유도선수 김재범이 81kg 이하 체급에서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온 국민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금메달리스트 김재범 선수를 만나 본다.

글 이재명 / 사진 연합뉴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결승전. 김재범 선수는 독일의 올레 비숍 선수와 대전을 벌였다. 그는 거듭된 연장 혈투 끝에 결승에 진출했기에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 아쉽게도 유효 1개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런던올림픽 유도 결승전에서 김재범 선수는 또다시 올레 비숍 선수와 마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김재범 선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량과 활기차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비숍 선수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경기 후 두 선수가 승패를 떠나 서로를 끌어안고 축하와 위로를 나누던 아름다운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 장면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재범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아시아 선수권 대회 4회 우승, 세계 선수권대회 2회 우승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추가하며 모든 유도 대회를 석권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냈다.

부상을 이겨낸 불꽃같은 의지

김재범 선수의 금메달이 더 값진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지와 노력이 숨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금메달을 일컬어 '한 팔로 일궈낸 승리'라 말한다. 그는 왼쪽 어깨 탈골과 팔 인대 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을 안고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부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난해를 훈련 중 어깨가 탈골되었는데, 의뢰진이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수술을 연기하고 훈련을 계속했어요.”

수술을 선택하면 다시는 못 오를지도 모르는 올림픽 무대! 김재범 선수는 신체상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력 소모가 큰 공격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공격에 집중했다고 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확신을 가져라

부상으로 인한 좌절의 한가운데서 수술대에 오르는 대신 올림픽 유도장을 선택한 김재범 선수. 그야말로 의지와 집념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 젊은이는 여전히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 수술 후 공백기를 거치면 다시 유도장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가능한 한 다음 경기를 계속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김재범 선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는 이유는, 바로 그의 멈춤 없는 도전 정신 때문일 것이다.

“실크로드 독자 여러분, 런던올림픽 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도경기에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Jae-Beom Kim, a gold medalist at the London Olympic Judo Games

Jae-Boem Kim had a big match with Ole Bischof from Germany at the final round of Judo in 2008 Beijing Olympic Games. Jae-Beom Kim was exhausted physically because he had advanced to the final round through extended games. Therefore, he failed to win a gold medal by just 1 Yoko difference.

Four years has passed since then. Jae-Beom Kim encountered Ole Bischof again at the final round of Judo in 2012 London Olympic Games. However, this final round was different from that in 2008. Jae-Boem Kim showing much upgraded skills and aggressive plays won a gold medal by defeating Ole Bischof.

After the game, audiences were impressed by a beautiful scene that two players hugged, celebrated and cheered each other regardless of win or loss. This scene is remembered as a best scene showing sportsmanship. Jae Boem Kim has achieved a grand slam conquering all major judo games by adding an Olympic gold medal, following an Asian Games gold medal, 4 times Asian Champions, and 2 times World Champions.

Strong willpower to overcome injury

The reason why Jae-Boem Kim's gold medal is more precious is that his willpower and efforts exceed the limitation of human being. People refer to his gold medal as 'a victory achieved with just one arm', because he won the match under serious injured conditions such as left shoulder dislocation, arm desmorrhexis and so on.

"Small and big injuries can't be avoided in playing sports. My shoulder was dislocated during the last winter training and a medical team recommended a surgery. I delayed the surgery and kept training because I had a goal at the Olympic Games.

Jae-Boem Kim might never play again in Olympic Games if he chose to get surgery. Jae-Boem Kim said that he focused on precise and effective attacks rather than those requiring a lot of physical energy in order to overcome his physical disadvantage.

Believe in your possibility and have conf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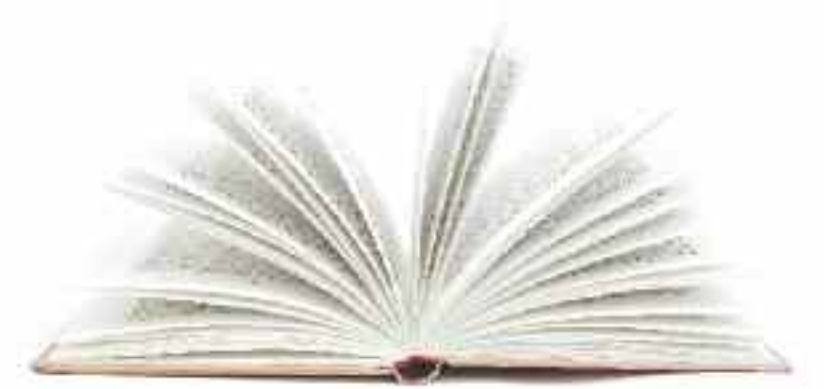
Jae Boem Kim chose an Olympic Judo mat instead of an operating table in the middle of despair because of injuries. This young man, who showed willpower and tenacity, is still concerned about the surgery because he thinks it will be difficult to return to judo mat after the gap for recovering the surgery. He said he will continue to prepare for the next game as far as he can.

The reason why Jae-Boem Kim is loved by many people is his challenging spirit "Dear <SILKROAD> readers, Thank you for supporting me. Please continue showing interests in Judo games. [SILKROAD](#)

책 읽기를 위한 책 읽기

미디어와 인터넷, 온갖 종류의 영상 매체들이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참 낡고 오래된 경구처럼 들린다. 하지만, 명사나 위인들이 쓴 독서일기를 보면,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데 독서가 진정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것은 독서가 삶의 태도와 관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골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서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두 권의 독서일기를 들여다보자.

글 박상호



책 읽기의 욕망에 다시금 불을 지피는 책 《행복한 책 읽기》

김현 / 문학과지성사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다. 1992년에 출판된 《행복한 책 읽기》는 우리 시대의 독보적인 문학평론가 김현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4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끝내 멈추지 않았던 책 읽기에 대한 기록이다.

훌륭한 불문학자이자 불세출의 비평가로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김현. 그는 1990년 48세의 젊은 나이로 작고하기 전까지 서울대학교 불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방대하고 꼼꼼한 책 읽기와 탁월한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평론이라는 분야를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 승화시킨 장본인이다.

‘김현의 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그의 유고집으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 동안,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써내려간 일상의 기록이다. 언제 그 많은 책을 읽는 것일까 궁금증을 낳을 만큼 방대한 양의 책을 꼼꼼하게 읽어내기로 유명했던 김현의 일기답게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본 연극이나 영화, 사회와 문화에 관한 문제, 심지어 학교 계단에서 마주친 낙서에 이르기까지, 일상에 대한 소소한 감상들이 아름답고 섬세한 필치로 기록되어 있다.

“권위주의의 특성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믿음’에서 연유하는 오만함과 뻔뻔함에 있다. 권위주의는 동어반복이다. 나는 권위 있으니 권위 있다!” “문학을 지킨다는 것은 더 할 수 없이 귀중한 자기 각성의 몸부림이다. 문학이 없는 시대는

정신이 죽은 시대이다. 문학은 한 민족이 그곳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재확인하는, 언제나 터져 있는 상처와도 같은 것이다.” 김현이 갖고 있는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촌철살인의 비평뿐 아니라 문인이나 예술가들을 뛰어넘는 그의 감수성까지, 이 책 한 권에 그의 사유의 깊이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철학적 통찰과 인문학적 소양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의 일기는 김현이 왜 위대한 평론가로 인정받는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당신은 지금, 도끼를 들 준비가 되었는가? 《책은 도끼다》

박웅현 / 북하우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사람을 향합니다.”, “엑스캔버스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 TV광고에 등장했던 이 카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입에 착 붙는 문구와 한 번쯤 그 의미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 광고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책은 도끼다》는 이 카피를 창조해낸 광고인 박웅현이 쓴 책이다. 크리에이티브의 전쟁터라 불리는 광고업계에서 그는 인문학적 깊이가 묻어나는 감성적인 광고로 주목을 받아 왔다. 박웅현은 자신의 아이디어 원천이 ‘책’이라고 말한다.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읽어냄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이루고 세상을 보는 색다른 시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공공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카프카의 말을 인용해, 책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어붙은 감성을 깨뜨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도끼가 되었다고 말하는 저자 박웅현. 그는 수많은 도끼 자국들을 통해 예민해진 촉수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 아이디어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머릿속 도끼질의 흔적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는 그는 2011년 경기창조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독회를 진행했다. 강독회를 통해 그에게 도끼가 되어주었던 책들과 자신의 독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은 도끼다》는 그 강의 내용들을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책 속에서 박웅현은 자신에게 울림을 주었던 책들에 대해 소개한다. 김훈의 소설과 고은의 시, 알랭도 보통의 매력을 말하고, 알베르 카뮈와 장 그르니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전율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꼭꼭 눌러 읽는다는 그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감동 받았던 구절들을 독자들에게 하나 하나 직접 보여준다. 밑줄을 치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꼼꼼하게 따로 정리하면서 책을 읽는 박웅현 식의 독법을 따라가는 동안, 여러분은 그에게 울림을 줬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 젖어 무뎠던 감각을 일깨워주는 ‘창의성’이다. 자, 이제는 얼음이 깨지듯 사고의 편협함을 깨뜨려버릴 ‘도끼’를 들 시간이다. **SILKROAD**



한국 건축미의 절정, 지붕과 처마

글 · 사진 김도경(공학박사,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국 건축에서 지붕은 전체 높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한국 건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지붕을 생각한다. 현대 건축은 평지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건축에서 지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평지붕은 사막과 같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에서나 사용하던 형식이었고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사지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평지붕이 아닌 경사지붕을 사용하였다.

소재에 따라 다양했던 전통 건축의 지붕들

한국 건축에서 지붕을 잇는 재료는 매우 다양했다. 이엉을 사용한 초가지붕은 옛날 시골에서는 매우 흔한 모습이었다. 산속 깊은 곳에서는 너와나 참나무 껍질, 대마 속대 등을 사용하여 지붕을 이었다. 너와에는 나무 너와와 청석을 사용한 돌 너와가 있다. 참나무 껍질을 사용한 지붕은 굴피지붕, 대마 속대를 사용한 지붕은 겨릅지붕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지붕의 모습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실제로는 지붕개량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주택개량 사업을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기와는 흙을 빚어서 만든 것으로 전돌과 함께 고급의 재료에 속하였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고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흙을 빚어 만든 기와나 전돌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물이 흡수되어 겨울에 동파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와나 전돌을 가마 속에 넣어 구워내야 한다. 오늘날에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가마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래서 기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급의 집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였다.



뒷산을 닮아 편안하고 넉넉한 느낌을 주는 낙안읍성의 초가지집들

모양에 따른 네 가지 지붕의 형태

한국 건축의 지붕 형태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모임지붕이 그것이다. 맞배지붕은 경사진 지붕면이 앞뒤에만 있는 형식이며, 우진각지붕은 지붕면이 네 면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팔작지붕은 우진각지붕의 중간을 수평으로 잘라낸 위에 맞배지붕을 올린 모습이다. 방형이나 육각, 팔각형 평면의 건물에 사용하는 모임지붕은 용마루가 없이 지붕이 하나의 꼭짓점에 모이는 지붕으로 평면 형태에 따라 사모지붕, 육모지붕, 팔모지붕 등으로 부른다. 일부에서는 중국은 황제의 나라로 우진각지붕을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제후의 나라이기 때문에 팔작지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건물에 팔작지붕을 썼고 승례문과 같은 성곽의 문루나 광화문과 같은 궁궐의 문에 우진각지붕을 썼다. 지붕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물에 우진각지붕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백제에서는 팔작지붕을 많이 사용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시대에는 날렵하고 경쾌한 느낌의 팔작지붕을 선호했던 듯하다.

아름다운 곡선의 미학

한국 건축의 지붕은 어느 부분도 직선인 부분이 없다. 처마를 비롯하여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 등 지붕을 구성하는 모든 선은 완연한 곡선을 이룬다. 물론 종묘 정전과 같이 긴 건물에서는 직선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규모의 건물에서 지붕의 선은 직선인 부분이 없이 전체가 완연한 곡선을 이룬다. 용마루와 처마가 직선을 이루도록 하고 양쪽 끝에서만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중국이나 일본 건축과는 다른 우리 건축의 특성이다.

지붕의 곡선은 뒷산의 선을 닮았다고 한다. 초가지붕의 용마루는 산과 같은 포물선을 이룬다. 기와지붕의 용마루 선은 포물선과는 반대 방향으로 흰 현수곡선으로 만들어진다. 현수곡선은 포물선과 마찬가지로 중력이 만들어내는 곡선이다. 지붕의 용마루 선을 잡을 때면 집의 배경이 되는 뒷산의 윤곽과 어울리도록 하고자 했다.

기와지붕의 처마 선은 3차원의 곡선을 이룬다. 처마를 앞에서 보면 건물 중앙에서 양쪽 끝으로 가면서 점차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로’ 또는 ‘양곡’이라 부른다. 또한 지붕의 처마를 올려다보면 건물 중앙부에 비해 양쪽 끝으로 가면서 바깥쪽을 향해 뻗어나가는 곡선을 이루는데, 이것을 ‘후림’ 또는 ‘안허리’라 부른다. 조로와 후림으로 구성되는 처마 선은 경쾌한 모습을 이루어 자칫 커다란 지붕이 건물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없애준다.

조로와 후림으로 구성되는 3차원 곡선의 처마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맞배지붕을 제외한 우진각과 팔작, 모임지붕은 지붕 모서리에 추녀를 설치하고 그 양옆으로는 서까래를 부챗살 모양으로 설치한다. 이처럼 부챗살 모양으로 설치한 서까래를 선자(扇子)서까래라 부른다. 선자서까래가 건물 바깥으로 돌출하여 처마를 형성하는 부분은 서까래 단면을 원형으로 만든다. 그러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면이 네모난 모습이다. 그리고 건물 안쪽에서는 서까래 사이에 빈틈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 선자서까래를 잘 설치해야 처마 곡선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완전한 선자서까래를 설치하는 것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선자서까래를 얼마나 잘 설치했느냐 하는 것으로 목수의 솜씨를 판가름하기도 한다.

한국 건축은 깊은 처마를 가지고 있다. 초석 윗면 중심에서 처마를 이은 선이 수직선과 30도 내외의



1. 서향하여 여름철 해질 무렵에 실내로 깊이 들어오는 햇빛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양과 창호 형태의 발 - 창덕궁 연경당의 서재인 선향재
2.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선자서까래의 외부(좌)와 내부(우) - 2000년도에 신축한 강화도의 주택, 학사재

각을 이룬다. 깊은 처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집의 내부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해가 높게 뜨는 여름철에는 내부로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한다. 반면, 겨울철에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처마가 깊어도 실내 깊숙이 햇빛이 들어온다. 깊은 처마로 인해 계절에 따라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서향한 집은 여름철 해질 무렵에 실내 깊숙이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쪽으로 차양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세월을 거치며 고유의 자연환경과 생활 방식이 구석구석 반영된 한국 건축은 그야말로 지혜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SILKROAD**

돌로 빛은 잉카의 기억, 쿠스코와 마추픽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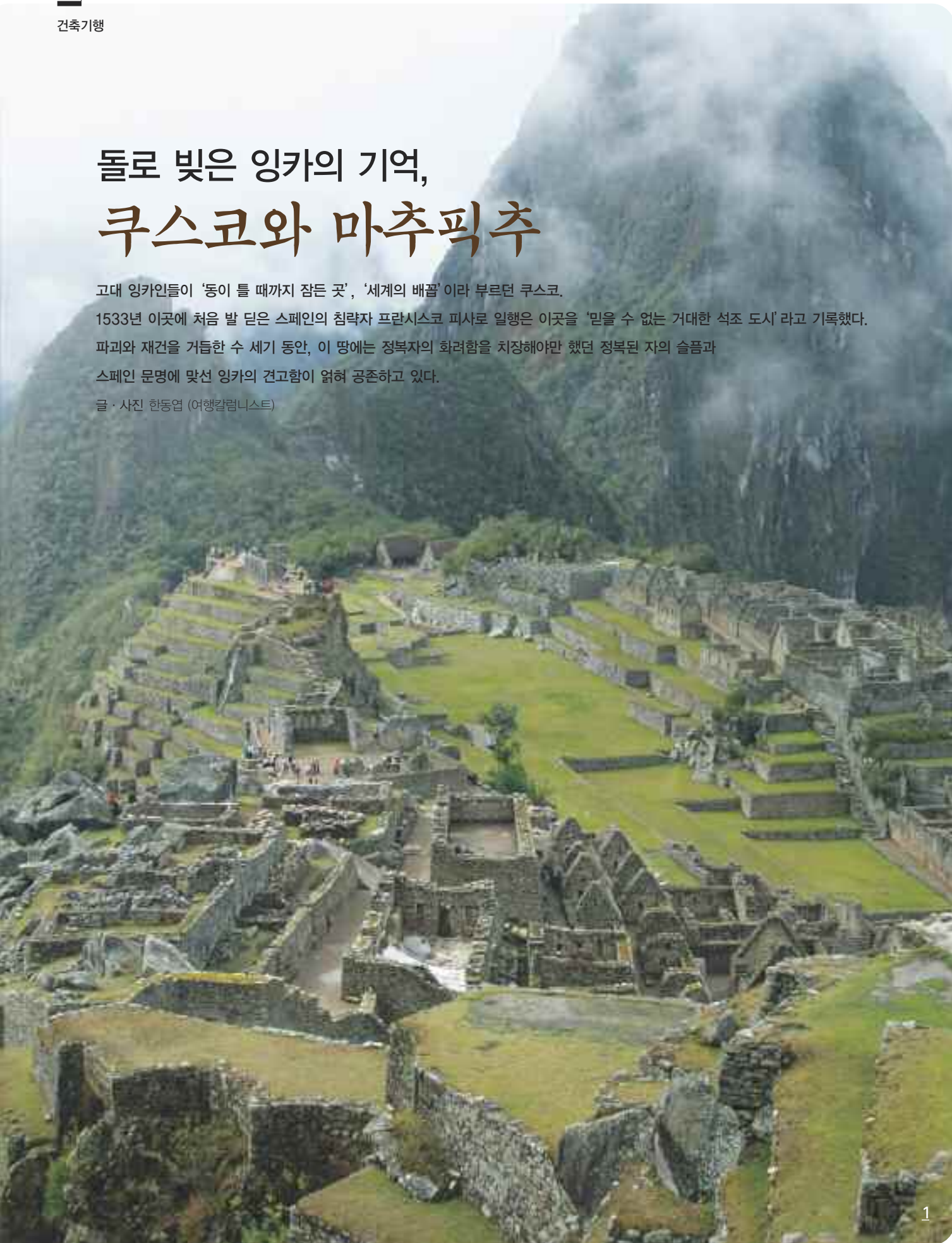
고대 잉카인들이 '동이 틀 때까지 잠든 곳', '세계의 배꼽'이라 부르던 쿠스코.

1533년 이곳에 처음 발 딛은 스페인의 침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 일행은 이곳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석조 도시'라고 기록했다.

파괴와 재건을 거듭한 수 세기 동안, 이 땅에는 정복자의 화려함을 치장해야만 했던 정복된 자의 슬픔과

스페인 문명에 맞선 잉카의 견고함이 얽혀 공존하고 있다.

글 · 사진 한동엽 (여행칼럼니스트)



1

인구 30만의 쿠스코는
잉카 이전, 잉카, 식민지
그리고 현대의 건축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구르는 돌맹이 하나도
예사롭지 않은
남미 고대 유적지 중 하나가
바로 쿠스코다.

태양신의 땅에 세워진 정복자의 성전

해발 3,400미터에 쏟아지는 쿠스코(Cuzco)의 태양이 뜨겁다. 고산에 적응하며 느린 걸음으로 도착한 아르마스 광장, 쿠스코 여행의 출발점이다.

중남미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듯, 아르마스 광장은 도시의 중심이다. 그리고 광장 주변에는 공식처럼 성당들이 불과 몇십 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며 줄지어 서 있다. 이 성당들은 '야만인에 대한 개종'을 외치며 신대륙 정복에 나선 스페인의 '귀족 홀리건'에겐 가장 큰 면죄부였다. 그래서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의 신전을 철저히 파괴했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다.

쿠스코의 아르마스 광장 주변에도 성당들이 이곳의 주인인 양 서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쿠스코 대성당과 라 폼빠니아 성당이다. 쿠

정복자들은 "우리의 신은 너희의 신보다 위대하다."고 외치며 그 땅의 주인이었던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정복자의 칼날이 거칠고 잔혹해도 역사의 생명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 그들의 신도시는 여전히 잉카의 문명 위에 서 있다. 바위를 자르고 그것을 모래에 갈아 쌓아올린 견고한 석벽은 총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잉카인의 자존심이었다.

이를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산토도밍고 성당이다. 이곳은 잉카인의 태양의 신전인 '코리칸차'가 있던 곳이다. 정복자들로서는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들이 자부하던 '앞선 문명'으로도 코리칸차를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었다. 결국 정복자의 성전은 잉카의 석벽 위에 지어졌다. 그런데, 1650년, 쿠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나자 산토도밍고 성당은 힘없이 쓰러졌지만, 석벽만큼은 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이는 돌을 요철 모양으로 다듬어 연결시킨 잉카 건축술 때문이다.



2



3



4

1.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
2. 삭사이와망에서 내려다본 쿠스코
3. 육중한 외관을 자랑하는 쿠스코 대성당
4. 바로크 양식으로 화려한 라 폼빠니아 성당

스코 대성당은 1560년 잉카의 비라코차 신전을 허물고 세운 것으로 1654년 완공까지 무려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광장 다른 편에 라 폼빠니아 성당은 바로크 양식의 섬세한 조각들로 화려하다.

광장을 둘러싼 성당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견고함과 웅장함을 자랑한다. 노예가 되어야만 했던 잉카인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성당들.

산토도밍고 성당뿐 아니라 시내 곳곳의 스페인 풍 건물들은 잉카의 석벽을 딛고 서 있다. 골목을 걷다보면 아래위의 형태가 판이한 벽과 건물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잘 짜인 퍼즐처럼 정교하게 쌓아올린 돌담이 잉카의 것이고, 그 위에 조잡하게 쌓아올린 돌 벽돌이 식민지 시대의 것이다. 특히 '12각 돌'과 그 주위를 둘러싼 돌들의 견고함은 현대 건축으로도 재현하기



5



6

철기문화를 갖추지 못했던 잉카인들은 커다란 바위에 쇠기를 박아 물로 수축시키고, 불로 팽창시켜 절단한 뒤 돌과 돌 사이에 모래를 넣어 연마하며 석벽을 쌓았다.

힘들 것처럼 보인다.

이곳에선 석벽만큼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잉카의 흔적 중 하나가 돌길이다. 잉카 길은 에콰도르 남부, 태평양, 칠레 북부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방으로 1만 6,000킬로미터나 뻗어있다. 파괴와 재건을 거듭하며 오늘날 제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행객들은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500년 전 잉카의 전사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세월을 넘나든다.

‘매의 둥지’ 삭사이와망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는 수많은 잉카의 기억들이 이어져 있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쿠스코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제국의 수도를 지켰던 삭사이와망(Sacsayhuaman)이다. 옛 영화를 잃은 요새 곳곳에는 사라진 제국의 슬픔이 남아 있다.

1536년 5월의 어느 날,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살아서 이 땅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쿠스코를 탈출했던 망코 잉카가 자신의 전사들과 안데스의 부족들을 이끌고 이곳 삭사이와망으로 돌아왔다. 황금에 눈먼 침략자들은 고립되었고 망코 잉카의 전사들은 승기를 잡은 듯했다. 하지만 ‘밤에는 전투를 벌이지 않는’ 태양의 전사들은 야밤을 틈타

기습해온 침략자들의 손에 허무하게 쓰러져갔다. 학살에 가까운 잔혹한 전투는 셀 수 없는 죽음만을 남겼다. 대지는 피로 물들고 하늘에는 죽은 자의 시신을 노리는 매들이 떠나지 않았다. ‘매의 둥지’라는 삭사이와망의 또 다른 이름은 잉카의 슬픈 역사다.

대부분의 잉카 유적이 그렇듯, 이곳의 정확한 건축 시기는 알지 못한다. 다만, 1438년에 즉위한 9대 왕인 빠차쿠티크 시대에 짓기 시작해 80년 동안 지었다는 설과 잉카시대 이전의 건축물이라는 설이 있을 뿐이다.

삭사이와망은 거대한 바위를 쌓아 만든 요새다. 3층 구조의 요새는 높이 18미터, 길이 500미터에 달하며 66개의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어 하늘에서 보면 날카로운 톱날처럼 보인다. 각각의 층을 이루는 바위는 그 모양새가 투박하기는 하나 이음새는 정교하기 그지없다. 가장 큰 돌의 무게는 361톤으로 소형자동차 560대의 무게에 달한다.

요새의 넓이로 보건데, 이곳은 잉카 제국의 전성기 시절 대단한 위용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정복자의 기록에 따르면이라도 당시 요새에는 서너 개의 석탑까지 갖춰 제국의 수도를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여행객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왜



7

- 5. 잉카 벽으로 유명한 로레또 거리
- 6. 쿠스코 골목에서 쉽게 마주치는 잉카 길
- 7. 잉카의 아픔이 서린 삭사이와망
- 8. 미로처럼 이어진 마추픽추의 길
- 9. 가파른 비탈에 돌을 쌓아 만든 계단식 농경지
- 10. 벵랑 끝에 걸린 모습이 아찔한 잉카의 가옥



8



9



10

복원조차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허물어진 모습이다. 식민지 시절, 스페인 정복자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이곳의 바위를 가져다 쓴 탓이다. 도시에서 보았던 성당들, 그것을 치장하고 있는 화려한 조각과 성상, 귀족들의 집과 학교... 삭사이와망의 흔적은, 제국의 역사는 그렇게 다른 모습이 되었다.

잉카의 비밀, 공중도시 마추픽추

안데스의 작은 마을 아구아칼리엔페, 마추픽추를 눈앞에 둔 여행객의 설렘이 새벽을 깨우는

곳이다. 힘겹게 산비탈을 오르는 작은 버스는 해발 2,490미터의 비밀정원에 여행객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내 터지는 탄성! 주위를 빙 둘러 높이 솟아있는 기암절벽들과 천 길 낭떠러지 아래로 흐르는 우루밤바 강의 힘찬 물줄기를 배경으로 사진에서나 보았던 공중도시 마추픽추(Machupicchu, 잉카의 언어인 케추아어로 ‘높은 봉우리’라는 뜻)가 거대한 운무 사이로 제 모습을 드러낸다.

날카로운 산비탈을 따라 길게 이어진 계단식 농경지, 산 정상에 가득 메운 수많은 석조건물들, 아파트의 발코니처럼 벵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고대 가옥들... 작은 길은 크고 작은 건물들 사이를 헤치며 미로처럼 얽혀있다.

총 면적 5km²의 이 경이로운 도시는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주거지, 신전, 농지로 나뉜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산기슭에, 광장보다 조금 높은 지대에는 신전과 천문대가 있다. 집과 집은 오밀조밀 이어져 어디 하나 허투로 쓴 공간이 없다. 차가운 돌문에 들어서면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움푹 파인 공간과 그만한 크기의 창이 있다. 신전에 비해 주거지의 규모는 다소 작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다.

학자들에 따르면 산 정상인 이곳에서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했다고 한다. 수원지를 알 수 없는 물줄기가 인공 수로를 따라 흘러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알뜰한 건축은 걷는 것조차 힘든 산비탈을 농지로 바꿔놓았다. 잉카인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많은 돌들은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일까. 산 정상에 인공 수로를 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외계인이 지었다.’는 우스갯소리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마술의 비밀을 몰라야 마술을 좋아할 수 있듯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전 세계의 여행객을 이 머나먼 안데스의 산꼭대기로 부른다. **SILKROAD**

마이너스 통장과 저성장 시대 대출 재테크

글 정광재(mbn 경제부 기자, 앵커)



세계적인 투자은행(IB) CEO 공모가 진행 중이었을 때 화려한 스펙에 다양한 투자 경험을 가진 우수 인사들이 대거 이력서를 제출했고, 몇 명의 사람들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 면접에서 나온 질문은 간단했다.

“지금 100만 달러의 공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운용하겠는가?”

지원자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투자 철학과 운용 방법을 내세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했지만, 결국 CEO 자리에 오른 사람의 답은 달랐다. 바로 “지금 있는 빚(Debt)을 갚겠다.”는 것이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지극히 간단하다. 아무리 좋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출 금리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굴지의 투자은행 CEO도 대출 비용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떨까? 당연히 투자에 앞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게 상책이다. 최근 억만장자가 된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1.75%의 모기지 금리 상품을 1.05% 대출 금리 상품으로 갈아탄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대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자산관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저성장 시대와 디레버리징

고도 성장기에는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최고의 재테크 전략이었다. 대출 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땅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든 7~8%대 경제성장 시기에는 돈을 물어두기만 해도 돈이 됐다. 반대로 저성장 시대에는



투자 기회가 확 줄어들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한국은행).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가 오면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한창이다. 디레버리징은 대출을 지렛대 삼아 투자에 나서던 ‘레버리징(Leveraging)’의 반대말로, 대출을 활용해 투자에 나서던 대신 대출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레버리징에서 디레버리징 시대로 돌아섰다.

이런 흐름에 맞춰 개인도 가능하다면 디레버리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빚을 줄여가는 게 최고의 재테크란 얘기다. 이와 같이 최근 경제 흐름만 놓고 보면, 최선의 방법은 대출을 줄여 새나가는 이자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대출을 축소하는 게 최선이라고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대출을 줄여나가는 건 쉽지 않다. 가계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씹씹이는 줄지 않다보니 오히려 빚이 늘어가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가계부다.

이럴 때는 똑똑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가장 낮은 금리로 받는 게 중요하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금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주거채 은행을 지정해서 거래를 집중해 주거채 고객 우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주거채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급여 이체나 카드 사용 실적, 공과금 납부 등을 통해 거래 실적을 늘리면 대출 금리 협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도 상환수수료나 만기에 구매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기간 중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쉽게 갚을 수 있고 빌린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또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 대출 상품보다 훨씬 금리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것만은 꼭 체크하라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사용에 앞서 꼭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통장보다 금리 면에서 유리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할 때 더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통상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다. 돈을 써야하는 기간이 짧고 상환 계획이 분명하다면 마이너스 통장보다 0.5~1% 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전에 혹시 예금담보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보자. 해당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이 있다면, 해당 적금이나 예금 금리에 소폭의 가산 금리만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금 만기가 남았지만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적금을 깨는 게 아니라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금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500만 원의 대출을 9%의 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계산해 보자. 500만 원에 대한 1년 이자는 500만 원에 9%를 곱한 45만 원(500만 원 × 0.09 = 45만 원)이 연간 이자다. 이를 한 달 기준으로 나눠보면 3만 7,500원(45만 원/12 = 3만 7,500원)이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인 셈이다. 단, 금융회사에서는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 이자를 365일로 나눠 대입한 후, 사용한 날짜를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계산 방식을 확인하라

마이너스 통장은 수시로 돈을 빌려 쓰고 갚게 되므로 한 달에 얼마의 이자가 붙는지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금리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다. 복잡하다고 대출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통장을 개설할 때 담당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자. 만기가 되었을 때도 무조건 갹신하지 말고 자신이 사용하는 대출 금액과 기준 금리의 변동사항 등을 체크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그렇게 조금씩 새는 돈을 잡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SILKROAD**

Shall we dance?

건강과 재미를 한 번에! 댄스 스포츠

댄스 스포츠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운동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이 하고 싶은 취미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연초에 '올해는 꼭 운동을 시작해야지!' 결심만 하고 아직 실천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댄스 스포츠와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김유경

{ 댄스 스포츠란 }

댄스 스포츠는 크게 라틴 아메리칸 댄스와 모던 볼룸 댄스로 나뉜다. 현재 공식종목으로 공인된 종목은 라틴 5개 종목, 모던 5개 종목이다.

1. 라틴 아메리칸 댄스

삼바(Samba) | 브라질 민속무용에서 시작되었으며, 턴과 바운스 액션이 특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펼쳐지는 삼바 축제로 더욱 유명한 춤.

자이브(Jive) | 지루박(공식 명칭은 jitterbug)이라 불리던 춤에서 유래 되었으며, 경쾌한 재즈 음악에 맞춰 추는 빠르고 격렬한 춤을 말한다.

룸바(Rumba) | 쿠바의 민속무용에 뿌리를 둔 춤으로 다른 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템포이지만, 풋워크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파소도블레(Paso Doble) | 스페인 전통 투우를 묘사한 춤. 남자는 투우사, 여자는 빨간 천(Cape)과 남자의 그림자 역할을 맡아 소와 싸우는 동작을 격정적이고 긴장감 넘치게 표현한다.

차차차(Cha cha cha) | 쿠바에서 시작된 춤으로, 4/4박자 혹은 2/4박자의 '1, 2, 차, 차, 차'로 이어지는 리듬에 맞춰 스텝을 밟거나 동작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모던 볼룸 댄스

왈츠(Waltz) | 독일어로 물결이라는 뜻을 가진 왈츠.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함으로써 몸의 높낮이를 부드럽게 조절하여 물결치는 모양을 만나는 것이 특징이다.



탱고(Tango) |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여자 주인공과 알 파치노가 춘 춤으로 잘 알려진 탱고는 아르헨티나 탱고와 정식종목인 스탠다드 탱고로 구분된다.

퀵스텝(Quick step) | '자리에 7소절 이상 머물러선 안 된다.'는 규칙이 있을 정도로 속도감 있는 댄스로, 빠르고 경쾌한 팔동작과 사이드 킥이 특징. 운동효과가 뛰어난 춤으로 손꼽힌다.

비엔나왈츠(Viennese waltz) | 기존 왈츠에 비해 약 2배 정도 빠른 템포와 연속 회전이 특징.

폭스트롯(fox trot) |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끊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춤. 따라서 부드럽고 완벽한 체중 이동이 필수다.

댄스 스포츠 어디서 배울까?

체계적인 강습 코스가 강점 - 아모르단츠(Amorantz)

아모르단츠는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댄스 스포츠 강습과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댄스 스포츠 동호회. 올해로 12년째 운영 중인 아모르단츠의 특징은 댄스 스포츠 공식 종목인 라틴 아메리칸 댄스 5종목과 모던 볼룸 댄스 5종목을 모두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2개월에 한 번씩 카페를 통해 강습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정기모임에 참가하면 동호회 생활을 미리 엿볼 수도 있다(참관인 교육은 저녁 8시부터 실시).

카페 주소 <http://cafe.naver.com/amordantz>

{ 스윙 댄스란 }

재즈의 한 종류인 스윙(Swing) 리듬에 맞춰 즐기는 춤을 모두 일컫는다. 세부 종류에는 지터벅(Jitterbug), 린디합(Lindy hop), 블루스(Blues), 부기우기(Boogie woogie), 발보아(Balboa), 셰그(Shag), 웨스트코스트스윙(West coast swing)이 있다. 그 중 미국 서부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웨스트코스트스윙은 린디합에 뿌리를 둔 춤으로, 4/4박자의 리듬을 가진 곡이라면 빠르기에 상관없이 어떤 곡에도 맞춰 출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리딩을 하는 리더와 팔로잉을 하는 팔로워로 나뉘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리딩은 남자가 팔로잉은 여자가 한다.

스윙 댄스 어디서 배울까?

웨스트코스트 스윙 댄스를 추고 싶다면 - 웨스티코리아

다양한 음악에 맞춰 출 수 있는 웨스트코스트스윙은 최신 유행가로부터 팝송이나 블루스, 힙합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초보자를 위한 초급1반과 다른 춤을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초급2반, 경력자를 위한 초중급반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카페 주소 <http://cafe.naver.com/westiekorea>



{ 살사 댄스란 }

비록 댄스 스포츠 공식종목은 아니지만, 살사 댄스 역시 흥겨운 라틴 선율에 맞춰 추는 대표적인 라틴 댄스 중 하나. '살사'라는 용어는 원래 스페인어의 소금을 뜻하는 'Sal' 과 소스를 뜻하는 'Salsa'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전형적인 라틴 음악에 재즈를 비롯한 미국적 리듬 스타일이 섞여있으며, 보통 한 커플이 함께하는 다른 춤 스타일과 달리 살사 댄스는 다른 파트너와도 자주 춤을 추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살사 댄스 어디서 배울까?

살사 댄스의 매력 속으로 - 스카이라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초급, 초중급, 준중급, 중급 수준별로 나눠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는 살사 댄스 동호회 스카이라틴. 현재 강남과 홍대 두 곳에서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 매주 라틴 바에서 열리는 정기모임에 참석하면, 살사 댄스의 매력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단, 입장료 필요).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skylatin>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정복하기

우리 모두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스트레스와 전쟁을 벌이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근길 밀리는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양차 차량부터 점심시간 식당 앞 길게 늘어선 줄, 어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상사의 질책, 나보다 잘 나가는 동기의 승진 소식, 3일째 이어지는 야근, 응원하는 야구팀의 끝 모를 연패, 걸핏하면 짜증내는 사춘기 자녀들까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지끈지끈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다 보니 우리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간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자.

글 김기찬

당신의 스트레스 지수는?

먼저, 평소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얼마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 설문에서 총점이 10점 이상이라면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시급히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을 마련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항목	자주	일주일 에 한 두 번	거의없다
1. 긴장감과 분노를 느끼고, 신경성 소화불량이 생겼다.	3	2	1
2. 직장이나 가정 등 주위 사람들이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3	2	1
3. 긴장했을 때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운다.	3	2	1
4. 긴장감, 편두통, 목이나 어깨의 통증, 불면증이 있다.	3	2	1
5. 밤이나 주말에 다음날 새롭게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머리를 식히기도 힘들다.	3	2	1
6.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매사에 집중하기 어렵다.	3	2	1
7. 긴장을 풀기 위해 진정제나 다른 약을 먹는다.	3	2	1
8. 긴장을 풀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내기 어렵다.	예	아니오	
9.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긴장을 해소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	1	0	
10. 업무의 성격상 마감시간에 쫓기는 편이다.	1	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스트레스, 어떻게 잡을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인체가 외부 자극으로 인해 긴장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좋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로 흥분하는 것 역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맥박과 혈압이 높아지고, 호흡이 빨라진다. 또한 눈의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두통,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결리는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면 불면증, 우울증,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나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중증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에서 시작되지만, 같은 스트레스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즉, 개인의 성격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난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 역시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기 마련. 대표적인 성격 분류 방식인 DISC형에 따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도적이고 급한 성격의
D(Dominance)형이라면...
- 비폭력대화(NVC) 수업

욕해서 내뱉은 감정적인 말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D형에게는 비폭력대화(NVC) 수업을 추천한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단계를 통해,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보다는 나의 느낌을 전달하기, 나의 진짜 욕구를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요청하기 등 타인과 진정으로 공감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다. 비폭력대화 수업은 한국비폭력대화센터에서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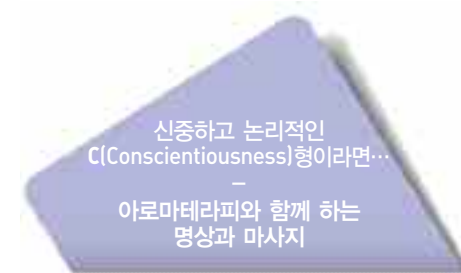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I(Influence)형이라면...
- 댄스 스포츠 배우기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I형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몸을 움직이며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댄스 스포츠 배우기를 추천한다. 평소 낙천적인 I형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때 그 때 받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분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왕이면, 빠른 비트의 삼바나 자이브 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듯.



안정적이고 수줍은
S(Steadiness)형이라면...
- 비오는 날 드라이브 하기

조용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여기는 S형에게는 비오는 날 훌쩍 드라이브를 떠나는 방법을 추천한다. 평소 취향에 따라 음악을 들으면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창 밖 풍경을 즐기다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으로부터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된다. 남한강을 끼고 양평을 거쳐 홍천으로 가는 6번 국도나 북한강을 끼고 가평을 거쳐 춘천으로 가는 46번 국도는 비올 때 꼭 한 번 둘러볼 만한 드라이브 코스다.



신중하고 논리적인
C(Conscientiousness)형이라면...
- 아로마테라피와 함께 하는
명상과 마사지

분석적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C형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우울감에 빠지거나 오랫동안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 C형에게는 신체를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나,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명상을 추천한다. 특히 다양한 효능의 아로마테라피와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 참고로 유칼립투스, 근육통에 효과적이고, 라벤더는 신경성 두통을 완화시켜주며, 캐모마일은 불면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SILKROAD**



→ 2012 승진자 워크숍

지난 5월 1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승진자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승진자 19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리더십과 소통을 주제로 한 특강과 직무역량 향상 및 직원간의 유대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늘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 태안가족 한마음 축제

지난 6월 9일 태안사업장에서 '제5회 태안가족 한마음 축제'가 열려 직원들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공채4기 입문교육

6월 25일부터 2주간의 공채4기 입문교육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입문교육은 직장 내 인간관계 스킬, 윤리경영의 이해, 프리젠테이션 스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견학, 자원봉사활동 등 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KDB Global Star 기업 인증

KDB 산업은행이 주관한 Global Star 기업에 실크로드시엔티가 선정되어 7월 26일 실크로드시엔티 본사에서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 2012 브라질 콘크리트 혼화제 기술 세미나

실크로드시엔티와 코트라가 공동 주최한 '2012 브라질 콘크리트 기술 세미나'가 지난 8월30일부터 이틀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건설분야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국가생산성대회 산업포장

지난 9월 5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36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실크로드시엔티 박민환 회장이 국가생산성향상의 공적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독자의 소리

→ 국내 콘크리트 혼화제 1위 기업인 실크로드시엔티 사보를 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보에 소개된 동행 콘서트와 베트남 모범 청소년 장학금 전달은 인터넷 뉴스로 먼저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내외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군요, 실크로드시엔티가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강아람 | 충남 서산시 대신읍

→ 좋은 원재료의 사용은 레미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첨단 건설소재의 리더 실크로드시엔티! 건승을 기원합니다.

송재기 | 충남 공주시 반포면

→ 역시 실크로드시엔티입니다. 2007년부터 각종 문화행사 및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봐왔고 특히 태안 청소년 문화 행사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엔 베트남 장학금 전달까지! 국내 무대가 아닌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실크로드시엔티 파이팅!

유상호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내외에서 문화사업을 지원해주는 귀사에 깊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장봉숙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레미콘 업계에 들어와 처음으로 접하게 된 사보입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한국 무역이라는 큰 주제를 비롯해 아이돌 기사까지 다양함에 놀랐습니다. 내용이 정말 알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보 부탁드립니다.

이청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 발전소와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으며 유용한 원자력이나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리즈로 나오는 건축기행과 같은 기사들은 취합하여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재 끝난 후의 자료들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종원 |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지난호 퀴즈 당첨자

→ 콘도 숙박권

장수호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 백화점 상품권

김성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박치영 | 서울시 중구 저동2가

이승웅 | 경남 양산시 어곡동

최규상 |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인사동정

입사

실크로드시엔티

- 경영기획본부

김상욱 과장(기획팀), 나은진(재경팀)

- 영업본부

길한빈 주임(영업관리팀)

- 해외영업본부

김정재(해외영업팀)

- 평택공장

김태선, 남기원, 양호열, 위필호, 장광수(생산팀), 이민용 과장, 고현우, 은조은(품질보증팀)

- 기술연구소

이지훈 주임연구원(연구1팀)
염수경 수석연구원, 김은희 주임연구원(TS&D팀)
고재범 주임연구원(연구3팀)

이동

실크로드시엔티

- 기술연구소

한용희 주임연구원(연구2팀)
박중수 선임연구원, 안윤광 주임연구원(연구3팀)
조성현 선임연구원(ETS팀)

실크로드하노이

- 박관민 과장, 고희규 주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성장한 첨단 건설 소재의 리더,
실크로드시멘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Global SILKROAD C&T

세계 최고의 건축물에 실크로드시멘티의 **ROADCON**®이 사용됩니다.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첨단기술로

대한민국을 넘어 **Global** 혼화제 대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

혼화제, 급결제, 바닥재, 실리카흙, 플라이애쉬, 실란트, 분쇄조제 등

(주)실크로드시멘티

<http://www.silkroadcnt.co.kr>

(주)실크로드티앤디

<http://www.silkroadtnd.co.kr>

(주)실크로드하노이

<http://www.silkroadhanoi.vn>

